

■ 尖端技術의 産室 ■

柳韓洋行 中央研究所

遺傳工學 이용 菌株분리도 시도

編 輯 室

博士 7名 賣出額의 3%이상 投資

84年 6月 20日에 준공된 中央研究所는 모두 21億원을 投入, 最現代式 施設을 갖추고 있다.

2천 5백 m²의 最新式 研究室에는 博士 7名을 비롯한 研究要員 46名과 研究補助員 22Name이 研究에 没頭, 사람이 오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

研究施設도 혼합의 분리 정량분석장치, 생리현상측정기, 미생물발효배양, 미지물질의 구조분석장치, DNA 및 RNA분리장치, 균주세포조직 檢鏡용 현미경등 이루 헤아릴수 없을만큼 고급 장비로 가득차 있다.

“우리研究所의 가장 큰 特徵은 年間 賣出額의 3%이상이 계속 投資되면서도 醫藥品의 生產活動 販賣活動등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순수한 研究活動만을 수행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從前에 해오던 外國開發 藥品의 製法研究등도 제외하고 오로지 新藥研究開發에만 注力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量產體制에 연결시킬 수 있는 뚜렷한 新藥開發 實績이 없는 것도 特徵중의 하나라는 金忠燮所長의 說明.

金所長은 이곳에 부임해오기 前까지만 해도 KAIST化學部 責任研究員으로 있었던 정통파科學人.

金所長에 따르면 中央研究所는 社長 직속의 研究委員會를 設置·運營하고 있으며 合成研究室등 6個의 研究室로 構成되어 있다.

“合成研究室은 原料藥品의 合成, 新藥物의 合成 및 生產化研究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製劑研究室과 더불어 研究所의 根幹이 되고 있지요.”

金所長에 따르면 이 두 研究室은 柳韓洋行이 해방전 설파제 合成경험에 이어 파스칼슘, 리팜피신, 기초원료로부터의 에탐부톨 合成, 피라진아마이드 合成등으로 결핵퇴치에 一益을 담당해온 研究分野라는 것.

金所長은 또 “合成研究는 현대판 연금술이라고 일컬어 지지요. 주로 石油化學製品으로부터 얻어지는 값싼 試藥들을 가지고 여러가지의 合成試驗을 통해 비싼 藥品들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意味에서 製藥產業은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產業중의 하나이고 政策的으로 권장되어야 할 分野이지요.”라고 힘주어 말했다.

年間 約 30件의 製品研究

中央研究所 製劑研究室은 製型別 新製品의 製藥分析과 安定性研究, 製型研究등을 수행하고

- ……… 지난 83年 4月 設立된 柳韓洋行 (代表 朴春眞)의 中央研究所 (所長 金……○
- ……… 忠鬱)는 그 施設과 運營研究活動에 있어 우리나라 製藥產業을 代表하는……○
- ……… 研究所로서 한치의 손색도 없다. ………………○
- ……… “순수한 우리의 技術로 優秀한 醫藥品을 開發, 國民保健에 이바지하자”……○
- ……… 이 研究所의 목표다. 이 목표가 말해주듯 이곳에서 일하는 68名의 研……○
- ……… 究要員 및 研究補助員들은 오직 國民保健에 기여하겠다는 一念 하나만으……○
- ……… 로 오늘도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
- ……… 한마디로 柳韓洋行 中央研究所는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추출해냈던……○
- ……… 것처럼 世界를 놀라게 할 新藥開發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
- ……………<編 輯 者 訳>……………○

있다. 또 年間 約 30件 정도의 製品研究를 수행하기도 한다.

그런데 柳韓洋行의 新製品은 대부분 이곳에서 開發되고 있는데 藥効를 12時間까지 지속시킬 수 있는 SLC캡슐등이 代表적인 例라는 것.

醣酵研究室에서는 醣酵를 통한 抗生劑, 소염효소제 등의 生產·研究를 擔當하고 있으며 그동안 리팜피신의 醣酵工程을 實用化한 이후 수년전부터 全國의 토양을 수집하여 방선균을 주축으로 한 균분리 및 항균스펙트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3種의 우수균주를 選定하는데 成功, 이 우수균의 미생물학적 분류, 배지 및 배양조건의 개선, 들여변이에 의한 균주개량작업, 생성물의 분리 및 기존 抗生物質과의 역가 비교 등 집중적인 研究를 수행하고 있지요.”

또 遺傳工學研究室은 세포용합, 遺傳子재조합 등을 통해 抗生劑 및 소염효소제 수율향상研究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藥理研究室에서는 그동안 약효검색기술의 確立, 급성 및 아급성 독성연구, 동위원소를 이용한 약물의 흡수분포 대사연구, 新藥의 전 임상연구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金所長의 말.

金所長에 따르면 中央研究所에는 약리 제6연구실이라고 부르는 動物實驗室이 있어 새로운

醫藥品 하나를 開發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까다로운 일인지를 잘 說明해주고 있다는 것.

動物實驗室도 最現代式

이 動物實驗室에서는 생쥐 5백마리, 쥐 3천마리, 토끼 2백마리등의 사육은 물론 철저한 시설기준 및 사육기준을 마련해 순종에 가까운 우수한 實驗動物을 길러내고 있다.

“이상의 研究室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實驗만도 수천종에 이르고 있는데 이같은 研究活動은 支援하기 위한 分析情報室이 따로 있지요 또 이곳에는 最新分析機器와 각종 情報誌 및 1만2천여권의 학술 잡지도 보유하고 있지요.”

金所長에 따르면 하나의 새로운 醫藥品을 開發하는데는 先進國에서도 보통 10년이 소요되며 研究費도 4백억원에서 8백억원까지 소요된다는 것.

金所長은 또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단계지만 우리 고유의 技術을 적극 活用하면 깜짝 놀랄 만한 新藥을 곧 開發할 수 있을 것으로 確信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따라 柳韓洋行 中央研究所는 今年에는 우선 研究體制를 強化, 新藥開發의 기초를 확립할 計劃이다. <W>